

무안 '황토랑쌀', 광주교육청에 520t 납품

고품질 친환경... 학교 급식 공급 확대 올해 서울 등 수도권 1080t 판매 계획도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이 광주시 등 대도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의 납품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끌어올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공급 협력업체 선정 공모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돼 올해 520여 t의 쌀을 납품하기로 했다. 납품업체는 면적평가, 밥 짓기 및 시식평화, 현장평가 등을 거쳐 결정됐다. 무안군에서 납품하는 쌀의 규모

는 광주시 학교급식용 쌀 전체공급량 3200t의 16.1%에 해당한다. 공급가격도 20kg 1포대당 5만3000원으로, 친환경 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65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홍보컨설팅사업, 건조저장시설 보완사업 등에도 2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특히 고품질 쌀 브랜드 법인의 규모를 키우고 조직화해 집중 육성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군은 지난해 수도권 등 대도시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등 542개 시설에 778t, 광주시 소재 21개 중학교에 176t 등 모두 954t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약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

관리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는 서울 등 수도권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총 1080t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을 대표하는 '황토랑쌀'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2년 연속 선정되고, 지난해에는 '러브미(米)'로 인증받는 등 고품질 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4일 오전 목포시가 봄을 맞아 청사 건물에 전시된 작품들을 교체하고 있다.

'목포시청 미술관'을 아시나요

청사 건물 미술작품 전시공간 활용 호평

목포시가 시청 청사 건물을 미술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본청에 '모란'(최성배) '축복'(김덕기) 등 72점이 전시된 것을 비롯해 의회동과 민원동 건물에 각각 23점과 7점 등 총 102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사업소와 동 주민센터에 전시된 작품까지 합치면 200여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800여점(문화예술회관 수장고 포함)의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교대로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역출신 향토작가들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매년 10여점의 작품을 구입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구입한 작품은 총 222점으로 8억3500만원이 투입됐다. 최근 시청을 방문한 중국인 양인결(陽仁杰·중국어 강사)씨는 "목포를 여행으로 부르는 이유가 실감됐다"면서 "전시회를 가지 않고도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진봉호 목포시 회계과장은 "예술품도 목포시의 자산이라서 관리·보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새 봄을 맞아 이달중에 미술작품을 대대적으로 순환 교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선상 어획물 절도 빈발... 목포안강망 선주들 "뿔났다"

5개 전통시장 돌며 장물 매입 자체 요청

목포항에서 선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상 어획물 절도 사건이 빈발하면서 선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근해안강망 선주협회는 4일 오전 잦은 어획물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크다면 목포 시내 5개 전통시장을 돌며 불법 어획물 근절에 상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휴친 생선을 싣고 상인들이 구입하면서 선상 어획물 절도 행

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장물 취득 상인은 물론 절도가 적발된 해당 선원을 고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정복용(55) 선주협회 회장은 "경매를 앞두고 2~3일 어선 창고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한 생선이 자꾸 사라져 선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과거 경비원을 고용했지만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단한 뒤 절도 행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일부 선주들은 밤새워 어선을 지키기도 했지만 절도를 예방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선주들은 한 마리에 3만원 이상하는 갈치 등 최상급 고기만 골라 훔쳐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한편 선주들은 한동안 국내 선원들에게 반찬용으로 고기를 지급했으나 외국인 선원이 반발하자 이를 폐지하고 대신 모든 선원에 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있다. 42척의 안강망어선 선주들이 가입한 협회는 목포수협 위판역의 80%를 차지한다. /영광=조익삼기자 ischo@



함평 벼 본격 출하 함평군이 지난해부터 새로운 틈새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벼 40t이 이달부터 본격 출하된다. 20여 벼 재배 농가는 기존 9ha에서 올해는 30ha로 재배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함평군 제공>

영광군-제주도 전기차·풍력산업 협력 추진

영광군은 4일 "제주도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풍력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영광군수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참관한 뒤 제주도 김선우 경제부지사, 제주대 허항진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전기자동차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시스템 개발에 제주도가 담당하고 전기차 스마트 충전시스템 고도화와 실용화를 위한 기반은 영광 대마전기차산업 입주 기업들이 추진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로부터 90억원을 지원 받은 이번 사업은 제주대 스마트그

리드 연구센터 주관으로 제주도, 전남테크노파크 등의 연구기관과 9개 전기차 및 풍력발전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정전 등으로 한전으로부터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력 피크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때 차량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가정 또는 계통부로 보내 사용할 수 있는 탑재형 충전기를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영광=조익삼기자 ischo@

목포항만청,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목포지방항만청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공사현장과 항만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백 항만공사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은 시설운영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해 이번 41개소,호안 7개소 등 항만 시설물 74개소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에 취약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결실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백 항만공사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은 시설운영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북

부안 마실길 최근 3개월간 27만명 방문

전년도 동기보다 3배 늘어난 규모

부안군은 4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개월 동안 부안마실길에 총 27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9만여명 보다 3배나 늘어난 규모다. 부안마실길에는 지금까지 서울의 '마음길따라 도보여행', 경기도 '드림산악회', 대전 '수요산악회', 부산 '산악회' 등 전국의 트레킹 단체와 기업, 학생들이 꾸준히 다녀갔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5월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제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에 부대행사로 '마실길 걷기행사'를 열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도 만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겨울 동안 많은 탐방객들이 부안마실길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꾸준한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길 정착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풍년제과 '초코파이' 인기 지난 3일 오후 전주 풍년제과 앞에는 전국에서 빵을 사려고 몰려 든 사람들로 200m 이상의 장사진을 쳤다. 62년 전통의 풍년제과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밀려 고전했으나 3년전부터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초코파이만 하루 5000여개를 판매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재검토하라"

"롯데쇼핑 입점 지역경제 블랙홀 될것"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주장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는 4일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마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롯데쇼핑 입점 등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롯데쇼핑 입점이 가져올 지역 경제 파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주민들에게 컨벤

션센터와 경기장만 건설하면 전주가 하루아침에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지역경제 붕괴와 도시공동화 문제에 대해 '지역상권 영향조사를 마치고 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네트워크는 전주시가 무조건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토건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지금 당장 거둬들

이고 시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는 그동안 재벌기업의 무차별적인 지역 진입과 영업확장에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하루아침에 돌변해 거대 유통재벌인 롯데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롯데쇼핑의 입점은 지역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 분명하고 그나마 대형마트 일일휴무제로 기사회생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회복불능의 돌이킬 수 없는 직격탄이 될 것임을 전주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정읍, 농림수산사업 예산 1483억 신청키로

정읍시는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농업기반 조성 등 47개 사업에 1483억원을 신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시는 최근 2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사업 선정 심의회를 열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 친환경비료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농업인 자율사업에 28건 931억원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농촌우수개발사업, 조림금 가꾸기, 농업인재해보험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사업 8건 264억원 등도 포함했다. 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지역인재 양성 요람 '풍남학사' 입사식

전주시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중로구 구기동에 있는 전주 지역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서울 강학숙 '풍남학사'가 문을 열고 4번째 입사생을 맞이했다. 입사식은 학부모와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선서, 시장님 인사, 전주시 기타동호회의 기타 연주 순서로 진행됐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풍남학사는 2인 1실로된 숙소 45실을 비롯 도서관, 체육단련실, 컴퓨터실, 식당, 휴게실, 야외체육관 등 최신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 숙실에는 샤워실과 화장실, 냉난방기, 인터넷망, 책상, 가구 등이 모두 구비돼 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 71억 예산 투입 친환경 농업 확대

순창군이 올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50% 증액된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4일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에 40억원, 친환경 자재 지원 등 19억원, 유기질비료 12억원 등 친환경 농업 분야에 71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억4000만원보다

42억6000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군은 올해부터 수도작 친환경 재배면적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모두 500ha 조성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등 설계중에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 여성발전기금 사업 대상자 공모

군산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여성단체나 비영리법인이다. 지원 가능 사업은 군산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 사업 등이다. 올해 지원액은 모두 3500만 원으로, 지원사업은 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달중 선정된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여객선도 없는 섬 비안도 5년만에 초교 입학식 '뭉클'

김나경 비안도초교 입학

여객도 다니지 않는 외로운 섬 군산시 비안도에서 5년만에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려 가슴 뭉클하게 했다. 군산시 육도면 비안도리에 위치한 비안도초등학교는 4일 김나경 학생이 입학하면서 5년만에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나경 양은 2011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군과 3학년이었던 나림 양과 함께 비안도에 있는 할머니댁으로 이사를 왔다. 당시 가족들은 회의를 거쳐 군산 시내에서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신 할머니댁에서 2년 가량 머물기로 한 것이다. 많이 태워 군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군산 시내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로 약속하

고 새 남매의 비안도행은 결정됐다. 나경 양의 가족들은 전교생이 4명에 불과해 담임 선생님과 1대 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도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연간 20여 차례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얼마쯤 온종일 돌봄교실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에 매료돼 처음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영 비안도초 교사는 "올해 태워 군이 졸업하면서 나림·나경 양이 함께 군산 시내로 전학하게 되면 6학년 2명만 남게 돼 내년 폐교가 불가피했다"며 "나림·나경 양이 비안도에서 졸업을 결심하면서 비안도초에도 밝은 등불이 비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